東亞日報 發行所 (masthead)

社說

「三一」的 三大戒銘

大抱容、大犧牲、大勇猛

一

解放後의 두번새해다。陽光이 비치어 地軸은 이미「亥」으로 始回하야「易道」의 一廻를 얻었다。太古生活의 易이요 敎化修正의 易이라、變革의 易이 天體의 周王에「新正」의 一廻를 그었으니 人事의 易数는 果然 무엇인가? 무엇을 啓示하며 무엇을 啓示하는가? 그리하야 可爲的이요 當爲的인 우리의 願望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新設分散의 嶺頭에 서서 길어온 一年을 回顧하니 混沌이 偶心이라、刷新한 事件은 列擧할 必要가 없게다。… 어서 五十步 百步論에 不過한것이다。어느 實際로든지 이것이 우리의 無能한 所致임은 勿論이나、그러나 無能한때로라도 能動일수 없는 外力의 制約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無能케 하였고 빛다른 사슬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 [illegible]

二

[illegible]

三

「주는것 없이 오는것 없다」…[illegible]

四

[illegible]

青田 李象範 畵伯 祝筆

―새해 맞이의 各界祝辭―

民族全體의 繁榮을

各自의 職分을 더욱 忠實히하자

韓民黨委員長 金性洙氏

解放된後 시 새해를 맞게되니 …[illegible]

眞正한 解放을

民主團結로 爭取

立議議長 金奎植氏

[illegible]

年頭頌

薛義植

一

丙戌年 오련더에 이겨레 있소이다。
한줌기 퍼진곳이 고소란히 뫄소이다。
한전님 뜻이옵거니 어이 지다 하오리。

二

먼동이 트노매라 첫닭울이 새이잤다
새빛 나리사라 머리숙여 비옵거니
이나라 구비진터에 고루고루 펴소서。

三

거믄고 되오리까 붕붕 북이 되오리까
자른재 길이 길이 흥에 흡버 울리리까
외누리 드놓은 소리、웨서 보가 하노라。

(四二八〇年正月初日)

統一國家로 建設의 새해맞이

一九四七年을 맞는 新年에際하야 …[illegible]

하一지中將 新年 메세지

[illegible]

祝新年

서울市貞洞一六一
金鍾健

서울市南大門路二街五
東一貿易公司
電話本局②六〇七番

泰昌工業株式會社
泰昌織物株式會社
取締役社長 白樂承

서울市中區南倉洞九〇番地
금강齒磨粉本舖
代表 金炯奎
電本②一六一六番

朝鮮料理業
組合員一同

社團法人 朝鮮損害保險協會
大韓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서울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新東亞損害保險株式會社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株式會社 和信百貨店

電機機械專門製作販賣
鮮榮機械商會
서울市南大門입
電話本局八四二七番

朝鮮問題는朝鮮人自決에委任

國共和平交涉再開는거이絶望

第四週AP週間時事展望

(뉴욕卅日發AP合同)十二月第四週AP週間 世界展望은 다음과같다

▲朝鮮問題=美國務省當局은 朝鮮의早期獨立實現은 美蘇兩側의意見不一致로 遷延되고있으나 美側은 美蘇兩側의 合意를보게되면 朝鮮獨立促成을爲한 共同委員會를 어느때든지 再開할用意가있다고 言明하는同時에 美側은 南朝鮮의 食糧 工業施設品 肥料等[illegible]의大部分을 [illegible]치않으면 안될것이라고 言明한바있었다. 何如間 美의立場으로서는 [illegible]計劃을遂行하는데있으며 聯合國이言約한 朝鮮完全獨立에 留意하고있는바이며 朝鮮問題는 朝鮮人自決에 委任하려는것이라고 말하였다

▲中國問題=國共間의戰鬪는 如前히繼續中이며 和平交涉再開는 거의絶望視되고있다. 中央側은 十年間이나 遷延되었든 新憲法制定을完了하였는데 이것은 明年度雙十節이나 又는孫文先生誕生日을期하야 實施하기로確定하였다 中共側은 이新憲法이一方的인만치 承認할수없고 中央側이 이를取消치않는限 和平交涉에는應치않겠다고 言明하고있다 그리고 中共側自體는 中央側의强力한對抗策을講究키爲하야 中共側內部 再編成을斷行하고 團結을企圖하고있다

▲佛印問題=現在 가장世人의 注目을 끌고있는것은 越南側과 佛側間에 展開中인 佛印戰爭이다 越南共和國獨立問題에 關한 協議結果去十月에 停戰條約이 締結되였음에도 不拘하고 佛越兩國間에는 再次戰鬪가 展開되고있는데 이것은 越南側이 沃地交趾支那를 越南共和國에 編入하겠다고 主張하고있는데對하야 佛側은 交趾支那의 分立을 力說하는데있는것이다 그리하야 兩側은 去週來 戰鬪를 開始하야 이는各地에 波及되고있는 [illegible]인데 越南大統領胡志明博士는「越南人은 奴隷가되느니보다 오히려 우리는죽엄을擇할것이며 우리는自由를爲하야 如何히長期에 걸처다하더라도如何한 犧牲을 覺悟하여서든지 이를敢行할 作定이라」고 言明하고 또佛當局은 胡志明博士가「越南的으로 佛印當局에對한國家主義者들의 蜂起를 煽動 또는 指令하고있다」고非難하고있다 佛國은 佛印問題로因하야 最後에 [illegible]하야 가장危險에直面하였다고 할수있다

▲「인도네시아」問題=「인도네시아」共和國側에서는 和蘭政府이 [illegible]「인도네시아」에 [illegible]하고있는것은 「인도네시아」共和國의主權과 獨立을 侵犯하는것이라고 非難하고있다 한편 去廿二日에는 和蘭은 女王의 [illegible]로 [illegible]「인도네시아」國家[illegible] 하였는데 이로써「인도네시아」는 聯邦國組織의 [illegible]

越、佛據點을猛擊

佛參謀本部戰況發表

(巴里卅一日發AFP合同) 佛印駐屯佛參謀本部는 佛印戰況에關하야 다음과 같이發表하였다

一、越南國民黨은 赤河口의 重要都市「하노이」市佛軍陣地에對하야 [illegible]攻擊을加하였다

二、越南軍攻擊은 河內市內의 佛軍陣地點을 [illegible]하야 同市中心部에 損害를加하였다

三、現在兩軍의 斥候兵들은 相對方에 [illegible]企圖하야 一步를 前進한것이다 그런데 이新國家는 八百[illegible]의人口를 가지고있는「뉴[illegible]」를 包含하고 있는것이다 [illegible]「기니아」를 除外한「자바」及「보르네오」東部 全島[illegible]

[illegible]를 敢行하고있다 그리고 [illegible]地方의 [illegible]한 佛軍據點「바닌」及「[illegible]」에는 佛軍增援部隊가 到着하였다한다

原子力管理策

(레이크싹쎄스卅一日發AFP合同) 原子力管理委員會는 卅日夜十對零(波蘭及蘇聯은 棄權)으로 原子力管理方策을可決하였는데 이에依하면 安保의 常任理事國은 原子力管理에關하야서는 否決權行使를 容認치않기로되었다

爲替價値는漸落

一內亂終熄없이經濟再建은難望

美紙中國評

(뉴욕卅日發AP合同)「뉴욕」타임스紙는 中國의 經濟問題에對하야 그社說에서 大略 다음과같이 論하였다 한다 「中國의經濟復興은 早期에는 實現되지못하리라」 悲觀的인形勢를 나타내고있다 軍備에對한 支出만은 增加되어 中國弗의 購買力은 急激히低下되고있는現象이다 日本의上海에建設한 施設만해도 美國專門家로 約五億弗假定으로 推測되는데 [illegible]되고있다

이리하야 中國의「인플레」는 漸々增加되는形便이며 今年一月부터 六月까지의 半年間 中國의 輸入額은 輸出額의 七倍나되어 中國弗의 爲替價値는 漸落되고있다 이러한 現狀으로보아 中國의經濟는 오래繼續되지못할것이다 그런데 中國의 이러한 悲惨한條件을 除去시킬 唯一의길은 中國內亂의 終熄일것이다

三八線블르ー스

丁亥辯(上)

도야지의 大德論

小梧生

○今年은 丁亥다. 풀어서「도야지해」다. 부르기가 거북한 이름이다. 더럽고、못나고、먹기만하고 게을기만 하는 一面의 風習을 원룸 도야지에게 뒤집어「돼지갈은놈」「돼지갈은놈」하고 學世가 一致하야 낮으레는 關係上、語感만으로도 不快한 이름으로 定期이 되어있다.

不快하거든 애초에 쓰지 말일이다。쓴다고 하면、自 甲子乙丑으로 부터 壬戌癸亥에 이르는 六甲의 順序는 首尾一貫이니 어쩌는수없다。요지음 世上처럼 方便대로 만드는「뒤범벅」일수는 없다。成立이 [illegible]하다고 已定된 法文을 國會에서 곳치는 立法議院처럼、그렇게 簡單하게 丁亥의「호랑이」로 곳칠수는 到底히 없다。

○昨年은 丙戌이니「개」요、再昨年은 乙酉니「닭」이다。 닭이라하면 새벽을 [illegible]하야 [illegible]을 [illegible]하야 始動을 意味한다。그래서 그랬는지、乙酉의 再昨年에 解放의 曙光을 보았고、大衆의 行動을 보았다。새날이 밝는다고 닭은 울었지만 아직도 새벽이었든지라、江山은 얼빤-한 어둠속에서 갈피를 못찾었고 民衆은 갈잡이 [illegible]리지 못한채 허둥 지둥하였다。「닭」으로 表現하기에 거이 알맞은 程度의 動態였음은 妙한 일이다。

○「개」는 [illegible]이오 [illegible]한 動物이다。그러므로 自己를 保守하기에 死力을 다하며 [illegible]에 일삼아 짖(吠)기를 잘한다。[illegible]은 [illegible]하고 終始도 못할 程度로 날뛰고 야단이다。그러고 때귀만 맞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움을 잘한다。변새도 잘 맞지만 [illegible]도 잘혼은다。한술(?)에도 한덩이 고기에도 [illegible]물며 아양을 부린다。……이렇게 쓰다가보니、개이야기가 아니라、昨年 一年間 걸어온 우리 自身의 自畵像 가태서 낫이 저절로 멈추어진다。自愧와 自責을 느끼는 까닭이다。

○乙酉가、그러고、丙戌이 그러지라、丁亥의 今年은 무엇을 啓示하는가?엇던 [illegible]리 없는「亥」字에 [illegible]을 닭아서 도야지의 大德을 論해보자。

○도야지라고 더러운것은 自嘲하야 [illegible]할 理致는 없겠다。집이건、자리건、더럽게 하여 주니까 그저 甘受할뿐이겠다。다못「都不關焉」하는 太陽的 素質이 뛰다리 드세일뿐이다。美醜와 便否에 對한 觀念이라 하기보다도、그를 超越한 太然自若이나 말하자면 泥容中에도 大包容 이다。

「何海는 不擇 [illegible]之水」라하야 河海가 가진 寬容의 美德을 일카르거니와、이것은 論法으로는 도야지의 그點이 도야지의 美德이다。차라리 이것을 나위도 없이 廣漠한 大德을 본떠서、今年一年은 大陸的으로 나갈수 없을가?疑惑이 할것없이 大胆(?)하게 [illegible]斤細小相(주)를 한입에、걷어 삼키고 上下左右를 한꺼번에 끼하는、그러되 太然自若한 指導者가 現하였으면 한다。그렇게 되어 [illegible]가 [illegible]하야 [illegible]하다。(續)

政界一年의批判과展望(上)

混亂과破滅의 一年

政治家의寬容性貧困

白南敎

사람은政治的動物이다(아리스토테레스)一八·一五以後 朝鮮人은、거의全部가 政治的이었다。文人、學者、新聞人、宗敎家、實業家、商人모두가 다 그랬다。封建制와 李朝末期政治나 日帝植民政治에 呻吟하여왔든 우리는 오래동안 自由에 굶주렸다가 日帝의 鐵鎖에서 解放되자 그歷史的瞬間의 感激과 興奮은 當然한 民族的熱情으로서 理解해야하고 評價해야할것이다。이러한 [illegible]것을 [illegible]이요 [illegible]는 十[illegible]年[illegible]의 [illegible]에는 奴隸生活에서 自由獨立에로 貧困에서 自由로의 [illegible]足에로 統制에서 [illegible]하였든 希望과 期待를 [illegible]것이다。[illegible]의八·一五以後、어느뭇 滿一年四個月을 지나 一九四七年 丁亥元旦을 맞이함에 [illegible]하야 果然 우리는 어떠케되었으며 朝鮮의 現狀은 어떠한狀態에 저었는냐。[illegible]에서 [illegible]로 [illegible]에서 混亂分裂로 [illegible]하였는 것은 [illegible]이 아닌가。그러면 그原因과 責任은 어데있으며 今後의展望은 어떠한가。

一、外力干涉과 混亂

朝鮮民族의 自由意思에 依한 自主政府가 아니고 南北에 美蘇兩國의 外力支配에 依한 分割朝鮮으로 二十[illegible]로 [illegible]하야 [illegible]의 苦悶에 헤매이는 民生問題로 말미아마 國民生活은 破滅에 直面해있는것이 오날날의 [illegible]가 아닌가。[illegible]

[illegible]이 옮지기고있으니 이國土의 人民의 政治支配 社會關係는 本質的으로 아무 變[illegible]化가없는 支配力의 主體만 바꾸어 논것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日帝下의 統一朝鮮이 八、一五解放以後 蘇兩斷의 分割朝鮮으로 變[illegible]하였을뿐이다。勿論 南北의 事情이 같지만 何如든 北朝鮮方式은 朝鮮人에게 政治의自由(?)를 주었서 朝鮮人으로 하여금 施政케하니 施政의 [illegible]와 責任이 朝鮮人에게 있다는것을 認識케한다。民主政治냐?一黨獨裁냐?하는問題는 政治의 [illegible]

[illegible]에서 [illegible]하야 [illegible]李博士나 [illegible]政治自由의 [illegible]을 [illegible]도 認定치안코 個人資格으로만 招聘하였든 까닭에 數次民族統一의機會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도리어 支持[illegible]의 對立結果를 [illegible]한 [illegible]의 指導的中心點의 缺如와 [illegible]가 指[illegible]方式을 [illegible]는 [illegible]이 아니였을까。李博士나 金九先生이나 金日成將軍이나 그個人自體에對한 問題는 그의指示傳令에 明[illegible]할것이 아니라 美軍政이 [illegible]하야 南朝鮮方式은 美軍政下에 朝鮮人官吏[illegible]

[illegible]가아니라 그를 中心으로 [illegible]政府[illegible]力量을 育成强化시킴으로써 民族統一과 政治訓練의 機會를 닥는데에 [illegible]가 있는것이다。李博士나 [illegible]政黨人이 [illegible]의 [illegible]心에서 [illegible]지 [illegible]다시 [illegible]人物이 [illegible] [illegible]立的 [illegible]이다。朝鮮民族의 [illegible]를 [illegible]하는 人民의 [illegible]를 施策의 [illegible]로 하는것이 아니라 旣定方針의 [illegible]에 [illegible]한 [illegible]를 指向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illegible]政治가 아니라 先人[illegible]의 [illegible]이 아닌가한다。[illegible]가 [illegible]政治混亂과 經濟破滅의 一因이 있다고 아니할수없다。

신년수상

▲文化界 (全國文化團體總聯盟委員長) 新任人事來社

▼歲新 月新 日新에 人事亦新!▼어른 아이 입성차림 맵시도 새롭고、떡국 국 ▼[illegible] 입맛도 새롭고▼ 알록 달록 짓고개 사당代身에 시골 달음 洋菓子 [illegible] 빛갈도 새롭고、▼하지 [illegible]의 新年맞세 [illegible] 入[illegible]容도 새롭고、말불고 개자고나니▼이제는 제차례라고 꿀、꿀-하며 물-꿀도 는 도야지의 소리소리도 [illegible]달리 새롭고▼[illegible]丁亥元旦이라는 門上의 [illegible]도 새롭고 [illegible]의 自主獨立[illegible]가 在其中하나 [illegible] 그[illegible]에서 마음속이 새롭고、▼그런지라、一刻千金 [illegible]子의 [illegible]도、새로웁고……

然 없을것인가? 亥年을 當하야 于先 우리는 이것을 [illegible]한다。(續)

31日

謹賀新禧

京城紡織株式會社

朝鮮農藥株式會社
代表者 鄭東和
從業員一同
本社及工場 仁川市[illegible]洞四〇一
京城事務所 서울市乙支路二街一二六

興韓被服株式會社
서울市鍾路和信빌딩內
社長 洪鍾萬
專務 元大漸
營業部長 廉那一
經理部長 朴容惠
工場長 李成喆

貿易商
營業科目
纖維、고무、製革、食品
製藥、製紙、石鹼、窯業原料
其他各種化學工業用
各種化學工業用藥品
油脂、顔料、肥料、세멘트
各種鑛産品販賣
서울市中區[illegible]一街五의二
合資會社 大榮洋行
社長 洪淳瑛
支配人 邦成贊

帳簿
習字
學用
小中大學用
元製造
國信洋行
서울市中區乙支路六街一八番地
(營業所 [illegible])
電話 光化門②二〇八番
工場 서울市[illegible]
電光③三二八番

移轉廣告
今般弊社事務所를 如左히 移轉하얏삽기 이에 謹告하나이다
一九四六年十二月廿七日
相互貿易株式會社
(新住所) 서울市鍾路區[illegible]洞四九
電話 (光) 一〇四七番

서울市鍾路區鍾路二街五番地
和信貿易株式會社
資本金 四千萬圓
代表取締役社長 朴炳敎
專務取締役 李昌根

運輸·倉庫業
朝日組
株式會社
社長 金炳哲
支配人 李弼榮
서울市西大門區一街一四[illegible]
電話本局②2150·2155—9·3795
支店 仁川·永登浦·釜山

富强朝鮮은科學의原力으로

祖國再建의科學設計 ①

한개의「시험관」은 세계를지배한다 ―는 구절은한 표어에만 그치지는 않었다. 이번전쟁에서 파본」을 각처내인 원자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처주었는가. 우리의 살길은우리조국을 부강하게할 단 한가지는 과학의힘이다. 아모리 정치적으로 독립한다하드라도 과학적으로 독립없이는 다시 남의노예의굴레를 뒤집어쓰고 말것이다. 과학기술의 총동원, 생산의 과학화 건국의 기초가되는 모든부문의 과학적인 설계와 과학적건설만이 오직 사명하는 조국자주독립의 반석위에 오르게하는 길임을 새해부터 더욱 명심하며 그 실천을위하야 기초를 쌓자

化學篇

朝鮮産의資源으로 工業復興에邁進하라

軍政廳化學課長 柳漢相氏

조선공업의 현상태는 원재료를 갖이고 있는 공장을제한각공장은 휴업상태에 빠지고있다 여기에 기초될뿐이고 장래 조선공업건설을 연구해야될것인데 조선은 먼저조선안에서 생산되는자원을 중심으로 즉 지하자원 혹은수산(水産) 농산(農産) 림산(林産)각 자원을 기초로한 우리공업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과거에는 조선에서생산되는 중요자원이 일본의 원료로가버리고 조선에는 극히필요한 한도내의것만수용되었든것인데 지금은그전부가 우리공업에사용할수있는것이다. 여기에 한낫 예를든면 국내지하자원의 하나로서 요업(窯業)원료로 점토(粘土) 장석(長石) 규사(硅砂)등을충분히 이용해서 각종요업품의제조발전을 도모하고 또는저품위(低品位)일지라도 다량으로생산하는 명반석(明礬石)같은것을 각방면에서 이용하야 가리자원(加里資源)과「아루미늄」의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공업화학을발전시켜 국내자원의 고도발전으로하여금 세계시장에진출하여야할것이다.

또한방법으로는 외국서원료를 수입하야 제작하는방법도 있는데 즉 만주콩(滿洲豆)같은것을 대량수입하야 기름을짜서 그것으로 만든「구리세린」이나「스테아링」또는 화장비누등을 만들어서 국외로 수출하면 첫재로 수출입관계를 상쇄할수있고 둘재로 국내의 비료(肥料)문제를 해결할수있다 또 전유지공업(油脂工業)이 활발화해질것이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다시말하면 조선의 공업발달에 이바지할 가장 손쉬운것으로서 국내생산자원을기초로 각공업을 발전시키고 외국수입의 원료로 국내경제력의 윤택케함과 동시에 외국파의 물자수출입 경비를 절약함에 있는것이다.

春谷 高羲東 壽伯 祝筆

救護에힘쓰라

戰災民收容所 所長談

장충단 전재민수용소에 수용된二천여명의 전재민을 대표하야 박인호(朴寅浩)씨등 四명은 군정청과 전재동포원호회등에 진정서를 내였는데 동수용소(所)소장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二천여명 전재민중에서 병으로 치료중인 사람이 五、六十명있는데 一천七백여명의 환자가 있다고 함은잘못이다 그리고 동자배급도 받은일이없는데 전재민들의 대표라고 하야 박씨등몇사람이 함부로말한모양이다 앞으로만전을다하야 구호할터이다

農業篇

有畜農業의 一般化

技術指導員의養成이最急務

農務部長 李勳求氏

八、一五해방과 아울러 우리조선농업도 당연히 해방되어야 하겠다 말하자면 과거의 조선농업은 완전히 일본을위한 식민지적 예속농업이었섰다 그런만큼 금후우리농업은 독립된농업으로 갱생시키는동시에 봉건적이고 보수적이든 모든 잔재를 일소해야하겠다 이리함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각도에서 우리의 농업에 관심을가지고 과학적기초에서 농업의새로운기구 편성 경영 처분을하는방책을세워야하겠다

토지개량 농작물증산계획등은 모다농무행정의 과학적 근거에따라·시책을세워실시하여 자주농업건설로 매진해야한다 과학적이라는것은 단적으로말하다면 농사를짓는 농부는물론 시책을 세우고실시하는 당사자들이 혼연一체가되어 조선의토양과 기후에마처 품종개량경작법과 토지개량을하고 경작면적의증가 영농기술개량 경영의합리화를도모하여야하는것이다 이리하야 남을위하느니보다 우선 우리를위하야 적어도매인당一석에 쌀한섬 이상은 먹을수있도록 하지않어서는 조선의자주경제확립에도 크게지장이있을것이다 농업문제는 다른 모든정치와 경제적조건과 관련성이 있어 손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삼림(森林)수산(水産)방면과도 어께를마추어 二대비약을꾀하여야 하는것으로 농업의과학화라고하야 一조에 기계농업(機械農業)으로 전환할수는 없고 금비(金肥)부족을면하고 다유축(有畜)농업으로서 수확을 올릴수있는 방법을써야한다 모든 점에있어 과학적으로하려면 기술지도원의양성과 농사에대한 상식을 넓리하기 위하야 기왕에있든각도의 농사시험장과 각관계학교에서는 여러가지의 부족을 무릅쓰고 연구와 실험에 노력하고있다 이뿐더러 앞으로는 고등농림(高等農林)학교등(高等農林)을 세워 기적인 학술적 연구기관을 확충할계획이다 그리고 가서는 주식(主食)의자급자족은 물론 과수(果樹)의 증식으로서 외화(外貨)획득에 적극적 노력하게하고 수一억본을 육묘(育苗)하야 더로 이의성과 또한크게 기대할만하다

惡質警官을監視

首都警察에 行刑調査班設置

경찰에민주화는 과거四十여년일제경찰에서 이탈된조선국립경찰이건설에노력중이다 만족한지도 성과를못내고있는데 수도관구경찰청에서는 일선경찰관이 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을주며 어떠한폐해가있나를 탐사하야 일제시대와같이 민중을 괴롭히며 민중을 공갈협박하는등 가진 악폐가있지나 아니한가하야 一월一일부터 시내十개경찰서사찰계에 비밀경관 비행조사반(非行調査班)을 설두고 경찰관리의행동을 철저히 감시키로하는한편 민중에게서 경찰에대하야 받은피해를보고바다 철저히악질경관을 숙청하야 신생조선경찰에명랑화를 도모키로 되었다

猪突로'獨立戰取'

三千萬겨레 한맘한뜻으로

정해(丁亥)의 새해는 밝었다 산에 들에 거리에는 해방제三년을 마지하는 희망과 새기운어린 새빛이 담북 나려있다 이해는 독립도되고 고루 고루 동포형제가 의좋게 살게 하소서 새해 첫날을 마지한 三천만겨레는 모다 이를 념원하고 합심하여 나아갈것을 더욱 굿게 맹서하는것이다

힘있게 밝은 새날부터 온겨레에 힘과부지런실은 희망에의 전향은 자주독립경제확립으로의 새로운전향바쁜결승으로 다름질치기를속구한다

금년은 윤(閏)二월=윤해로 양력으로는 三백六十五일이다 마음에잘기와 중요절차를 들어 새해의 메모로 이바지하려한다 ▲小寒一月六日▲大寒一月二十一日▲舊正一月二十二日▲立春二月五日▲獨立記念日三月一日▲驚蟄三月六日▲春分三月二十一日▲寒食、淸明四月六日▲穀雨四月二十一日▲李忠武公誕日四月二十八日▲立夏五月六日▲世宗大王誕日五月二十九日▲月食六月四日▲夏至六月二十二日▲端午六月二十三日▲初伏七月二十日▲中伏七月三十日▲立秋八月八日▲末伏八月九日▲解放記念日八月十五日▲中秋節九月二十九日▲한글날十月九日▲立冬十一月八日▲開天節十一月十五日▲秋收感謝日十一月二十七日

戰災民義捐金

전재동포에게보내는 따뜻한동족애의의연금― ◇시내낙원동 상룡(闊洞)회에서 一千원을 전재민의연금으로 二十七일 본사에기탁

▲日氣豫報=京仁地方 來日은 北西風이불고 晴天이계겠다 ▲最高=零度 ▲最低=零下五度

虛僞强盜事件

痴情이나은年末劇

져무러가는 섣달그믐을 이틀은 새벽오전二시경 급연피를흘리고 영등포서에 뛰어와 노상에서 강도를맞나 현금四萬圓을 강탈당하였다는보고로 잠잠하든 시내각서 경비전화는 요란히 소리처 범인수배를 명하는한편 비상경계망을 전시내에 둘러싸게되었다 그러자 무시간만에 피해자인 시내영등포정 김(金)모(二五)의 타토지술이 수상하야 추궁조사한즉 간악한녀자의 피로 돈에탐내 자기손으로 자기머리에 상처를내고 경찰에 허위보도를 한것이판명되여 유치장신세를 지게되였다

遲々한料亭開放

餓死線上의災民들自進占據決意

서울시내에서는 적산요정 十三동을 개방하야 전재동포를 수용한다고 장담하든나머지 다시一개월을 연기할것을 언명하야 사회의 물의를 환기하고있는데 장충단 전재민수용에 수용된전재동포들은 수차에걸처 군정청과 전재동포원호회에 궁박한 사정을 호소하여오든바 三十일다시 전학현(田鶴鉉)씨등 대표가군정청을 방문하고 준다든 적산요정을 하로바삐 개방하여달나고 자진하여왔는데 대표원은 이구동성으로 당국에서선처하는바 없다고하면 그들은 자진점령할것을 부르짖고있다

通信의自主權

對外的雄飛에의準備

通信篇

遞信無線課長 朴熙昱氏談

새조선의통신설계를말하기전에먼저 조선의 통신자주권(通信自主權)을말하려한다 신김둔재는독립이다 현재 통신사업은 대내적으로는 조선인손으로 운영되고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아직 우리손으로 운영이 못되고있는 형편이다 통신사업이라는것이 그국가의문화수준을 말하는동시에 문화의 진흥을

이라고말할수있다 기술자의 입장으로 구상될 조선통신계의 장래를 이론적으로나마 실현의기대를가지고 말하고저 한다

電信電話=조선의 전신전화는 해방이후 수선을하다가 한일못할지경이다 건설이 퇴보되는감이있는데 부속품관계상 부족이한사정이다 장래는 대도시만은 전부자동식전화로 고쳐야하게되며 대(台)수도미국가지 신청만하면 가설하도록하여야되겠고 도시미관상 전화선도 시내만은 지하로 무더야될것이다

無線=조선은 지역적으로보아 무선보다 유선(有線)을 발달시키어야되겠다 조선은 대외적으로나 무선을쓰고 대내적으로는 무선의필요성은 그다지 느끼지안는다 무선을쓴다면 초단파(超短波)를 이용하게될것이다 조선은 대외적으로 해저전선(海底電線)의 소유가하나도없고 연락선이 일본과밖에없어 자연히 외국과 연락상무선이 절요하게되었다 그리고 유선으로 보충하기위하야 면소에는 게최중여있든 주요도시 우편국에 무선화(無線化)가실현될것이다

放送=국내 방송은 단파방송이 필요치안타 단파는 대외 방송밖에는 필요치 안흘데 금후 국내방송은 미국같이 중파(中波)를 사용하며 서울에서는 二중방송을 재실현시켜 방송국 연예등을 구분 방송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도(濟州島)와 울릉도(鬱陵島)에는 전파통신상 거리상 적은 규모의 방송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技術問題=통신기술은 통신사업반전상 가장 주요한문제인데 현재국내에는 약一만명의 기술자가있다 무선유선을말한하고 기술이없어못한다는 문제는 하다도없다 외국과같이 연구소등을 만들어 자유로연구할기회를 주어야 하겠다

테레비종=조선에서 「테레비종」방송의 실현은 어렵다 세계에서 미국영국 독일 밖에실현되나만는 한사람도없다 하나 장차는 없다 또조선에는 기술자가 반드시실현하여야만될것이다

有線寫眞電送=유선전송사진만은 사진보도상 기타긴급을 요하나만치 방금 체신부에서 명년경에는 부산(釜山)서울간 전송사진을 취급할계획을세우고있다

丁亥元旦

서울市鍾路區□□洞九六
三和製藥社
李圭鎔
電話光化門②三〇一八番

서울市李□洞
敎育圖書 株式會社 文化堂
朝鮮敎育研究會
電話⑤一六九六・二七八七番

서울市中區東子洞十二番地
朝鮮海陸運輸株式會社
電話本局②五、一〇二

서울市中區乙支路三街二四一番地
平和電業社
代表者 宋箕範
電話本局②三〇五・七五五七

서울市忠武路二街五九
天寶堂 朴均達
電話本局②一八二四番

乙支路三街六〇
郭泰榮

서울市鍾路區寬勳洞一二二
圖書雜誌 都賣 一成堂書店
電話光化門③九七八番
振替京城三一八七〇番

泳顥 大人金海鎭氏以宿患今月三十日午後四時四十二分於忠正路一街一〇番地自宅別世玆以告訃
發靷 一九四七年一月一日正午
葬地 高陽郡新沙里
嗣子 泳顥
親戚代表 宋
友人代表 金元
護喪 金元亮

祝檀紀四二八〇年
海洋大活劇
海賊
파라마운트社超特作
主演 푸렛씨카・가-ㄹ / 루레브리・마-쳐
1月1日부터 優美館

大都會
陣華豪大巨의 東界劇樂
三年동안의묵어운 歌謠界에트리고 期待하시든 여러분앞에新年의찻人事를드리는
歌謠將軍 白年雪
兒雲 南成 自李
娘龍 淑銀雨 淑桂 英昌潤 王韓 李朴李
八才少女歌手 / 달으깨의王者 / 아끼미온名手
吳銀玉 張致姬 白山 李女 尹素男 梁錫天 李仁根 大都會
비라에티- 노래하는世上
喜樂劇 뒷거리의王者 七場
31日부터 夜三回連續
第一劇場

青春劇場
新正公演
祝迎春
사랑과人生 34場
얼마나우시렵닛가 얼마나우스시렵닛가
31日부터
王都

ClibPDF - www.fastio.com

文壇一年의總決算

우리文壇의回顧와展望

朴鍾和

朝鮮文壇은 解放以後 두개의 다른思潮와 少數의 中間兩端을 갖보는 左翼 右翼派를 形成하고 있다。하나는 左右의 모든 政黨을 超越하여 純粹한 文學의 立場에 서서 모든 帝國主義의 殘滓를 排除하고 悠久한 五千年의 民族的 精神을 指向하야 新羅의 花郎 高句麗의 人民 渤海의 民族 모든 우리先民들의 勇猛 明朗 剛毅하는 進就的인 偉大한 民族性을 復活 鼓吹 興起하야 封建制度의 殘滓와 日帝의 資本主義의 化身인 日帝의 三十六年間 壓迫과 擁護밑에 하마하면 墮落 消失 滅亡될번한 우리의 民族精神을 回復發展하야 오늘날 解放이란 美名아래 國家獨立이 되려는 우리들民族의 危機를 救해내자는 正統派的인 民族文學을 樹立하려는 民族主義文學作品이요 다음에 中間的存在 左翼右翼派는 民主를 타는사람 넘어나 말하나

밑에 探求를 놓이었든 카프文學의 舊態를 직힌 傾向 過去의 文人과 多少의 汗向 明을 거처서 解放前後 여기에 臨時 共鳴呼應하여 否定한 作品을 자랑하는 一派의 欲消左翼文士로 形成된 同盟이 그 하나이다。

入·一五以後 日帝의 退却以來 두개의 潮流 끝 民族主義文學運動의 復舊와 프로文學派의 再起는 地下로 抑壓되었든 두개의 抗日的 思想이 解放의 光明과 함께 勢좋게 일어나는것이매 當然 또 必然의 所致라 그다지 놀랄것이 없고 더욱이 푸로文學의 再起는 그 思潮의 性格인 必然이 朝鮮民族解放의 使命과 偉大한

權力을

갖인 聯盟스러운 聯合國의 一方의 態이매 그 思想 乃至그 思潮를 謳歌謳뜻하는 푸로文學이 藝術的 價値의 有無를 아직不同하고라도 一部文壇을 風靡시킨 것은 既定의 事實이다。

이리하여 푸로文學 끝은 文學家同盟은 昨年十二月下旬 朝鮮民族에게는 가장 沈痛한 悲報 託治와 또는 侵略 라는 때에 欣然이 左翼政黨과 그 行動을 같이하여 三相會議支持를 絶大한 同係로 하고 作品보다도 行動으로 藝術보다도 宣傳으로 政黨派 表裏를 一致되었고 또한 政府上으로 文學家同盟의 重要한 幹部들은 民族解放 또는 左翼政黨의 重要한 幹部級까지 되었다。

이에 反하야 眞正한 民族文學을 樹立하기 爲하야 民族主義文學運動을 口號로하여 일어난 文壇家協會、靑年文學家協會、中央文化協會 文學家同盟은 原來 政黨派의

結托을

스스로 急務할만큼 物質의 背景을 必要로하는 모든 政黨派 行動이해서 못하고 또한 文人으로서의 第一線的인 政治的 활動이 本質가 아닐만큼 主로 作品本位의 作家的 活動파 詩 朗讀 出 紀念의 詩人·追悼等々이 있었을 뿐이었다。

지나간 一年을 돌아보고 오늘날 이 鬱憤에 빠져 허우적 우리는 우리同胞와 民族의 悽慘스런 現實에 直面할때 우리들 보며는 작은 또는 思潮의 主流를 작은文人들은 너나할것없이 진실로 自愛하고 自肅하고 反省하고 깊히해서 否認하게 批判하고 依然이 判斷해야할것이다。

一지금의 現實은 자치잘못하면 民族을 또다시 千年地獄속에 떠러트리게 되고만다。解放의 現實은 只今二大强國者에 半身不隨가게 위저있다。無理도明한 運命을 자랑하는 資本主義民主主義國家와 階級打破를 내세워 國家와 國家는 團結하라는 世界主義를 標語로하야 東西洋에 飛躍하라는 赤色主義帝邦共和國聯盟이이다 가락이 나뉘 大陸에 걸려 니기쉬운 朝鮮사람들이 또다시 思化 赤化가되어 自國의 紛亂內紛과 外來의 干渉下에 民族再起의

千載의

好期를 그스란이 놓쳐버릴까봐 큰걱정이다。혹한이에게 엎여가도 제일몸만 일치나치는 術師파 같이 우리는 언제나 朝鮮民族이란 民族精神을 잃치않은채 이同胞를 잘 넘어야할것이다。

가장우리가 警戒할것은 一時的 依存的 國際派 自我陶醉에 빠져 祖國反映나 反民族的 無理하고 封建主義의 形骸다 資本主義를 文化라는것도 아니다。朝鮮政府가 完全히 獨立 鞏固 우로서는날에는 말할것도없이 民族主義文藝作品을 政然히 알집이서 朝鮮的인 社會主義 그렇다、民族文學의 正統性을 모든人民의

代辯者

되기에 조금도 遜色치않을것이다。朝鮮사람의 民主主義文學은 비로소 이곳에 高潮되어 百花爛漫의 꽃이필것이다。

朝鮮사람의 眞理는 오직 하나밖게 없다。民族自決이 있은然後에야 비로소 모든 正한 階級解放이 있을것이다。

時調 횃불

가람

지루한 그밤 다 가고 먼동이 트이더니
구름이 밀려 들어 도로 컴컴 하여라
나가려 나가려 하다 지행 몰라 하누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룩한 님이시어
우리를 사랑하는 거룩한 님이시어
해같은 횃불을 잡고 앞을 서어 지어다

丙戌詩壇의後瞰(上)

趙芝薰

詩가 그法의 唯一한 方法인 音律를 빼앗기고 表現아래 犬馬처럼 학대이던 十年은 오직 恥辱의 세월이었다。여기에 불타는 詩魂을 불러 이르키고 生活한 五百을 다시 선사하는 解放의 비는 모든 藝術家속에서 특히

··詩人··

詩壇에 싸여、어찌할 모르도함이 떠들게한것은 차라리 當然하였으나 個個의 月齡 芝蓉 水郎 가람 河潤으로 부터 詩人에 이르기 까지 百名일은 詩人이 노래를 불렀다。그러나 詩는 살아있는 言語속에서 그 强力한 制約을 飛躍할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무엇보다 感激은 한갓 詩精神의 壓縮을 가져오고 말았으니 結局 解放의 비는 無爲의 洪水였다 詩壇에도 洪水가 났다、여기 民族詩 樹立의 生命의 原始林서 까래가될 生命의 기둥이 되고에서 며오는 洪水이 갈간이 있지 않은것이 아니나 이 흙탕물에 떠가는것은 黑版가 겉래요 지푸래요 쇠

땅 疑心하는 바로 詩의 血液이 되지 못하고 詩의 感情파 思想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의 詩人으로 누가 民族的 人類的 命題앞에 心情을 이가 있으며 政治와 社會에 눈감은 이가 있는가。다만 이들 詩人의 本來으로서 理性파 感性의 前위에 올리 둘것이매도 不均하고 有能한 詩人 起林 蹂躪 國田까지가 이

·洪水·

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비로드、양탄예 動 쓸 단어 린共和國의 노래가 되물지 않은 民族의 그列뿐이니 언제나 새로우려는 感慨도 마언語의 原野가 없을때는 田의 無秩序 公式이 서면 하일이 나타 아 터득하는 蘭변만 나는것과 마찬가지다。

(一金) 共產으로 가자 무엇을 주저하는가 하고 눈에 피줄을 세우며 부르짖는 이 熱情的 赫赫 아니 먼저 術와 하고서야 主張한 詩의 人民을 흥분시킬수있으리라(一奧) 하나씨의 情을 자자와서는 이내 五月의 거운에 바친 七百을 참인드시 떼더니 무엇이 부끄러워 나죽 몰리고 겸상을 올리면서 흙엽 쯤쯤 울며 가는 것인가(一李) 모두가 지금

·時流·

化罷을 책 아침에 이렇게 기에 하루더니 옛날 그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다。詩의 生命및 變態는 확시 生命의 깃바닥에서 獲得되는것이므로 詩人은 언제나 讀者를 속이기 보담 제自身을 속이기가 더 힘드는것이니 몸어가서 싸워야 한다는 이도 앎고 보면 별수가 없는 것이다。★

한해가 지나는 동안 詩의 潮流도 엔간히 많기 시작하였다。순진내 심심한 詩가 자주 며오는가 하면 꽃잎과 버들개지와 한구름도 며오고 강가에는 새터를 닭는 썽가 있는 生活의 노래도 들린다。民族詩의 巨火한 一如한 處刑의 前爺파 一如한 爆發的 첫평이를 올이든 詩人은 致韻이다。비록 그의 洗練되지 못한 語句와 技術이 幼稚하다 하나 그 詩의 洪水거리까지 않은바아니나 允分히 慶賀하고 稱讚할 이 詩人이야말로 民族詩 開拓의 첫 일꾼이 되기에 足하다。(柳木栗、趙靈出 등) 流)이 터진에 거름될 부리는이는 斗龍이다。(게속)

短篇連載小說 길 (1)

金永壽 作
陶 心 畵

너무도 뜻밖에 만나서 그런지

「아、김형 아뇨?」하고 바싹 앞으로 다가서며、와락 손목을 잡아 흔들때 까지 나는 멍 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에 정신이 없었다。

「나요。나 모르겠소?」

하며 몇번 손목을 더 흔들었을 때、

「아 손(孫)형!」하고 그제야 나도 아주 그의 손을 잡고 바우 흔들었다。

「아니、그래 언제 왔소?」

우선 나는 이것이 궁금하고 반가웠다。

고향인 진남포에 가서 그동안 유치장으로 형무소로 · 올려 다니느라고 지친 몸을 휴양하고 있다는 소문은 풍편에 들었지만 이렇게 본시에 노상에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다

「으응、배를 타구、인천으루 올라왔지。여길 오니까 좀 정신이 나는군。」

하며 손군은 거므테테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며、정말 반가워서 어쩔줄을 모르는 말투며 태도였다。

동경에서도 다섯해나 같이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나와서도 내가 ㅅㅅ신문사 학예부기자로 다닐때、그는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취직을해서、고향인 진남포를 떠나、서울로 올라와、하숙 생활을하고 있었다。

그러나、그때만해도 서로직장이 다르고、또 서로 똑같이 바빠기도 해서、잘해야 한달에 한두번 만날까 말까 한 처지였다。허지만、그래로 같은서울 안에 있거니 하는생각에 우리들은 서로 멀리 해어저 있어、만나지 못해도 마음은 든든하였고 그리

그러다가 한참 태평양 전쟁이 익어갈때、그는 별안간 방송국 안에서、낮뉴一쓰를 하고 나려오다가 경기도 경찰부 형사한에게 끌리어 갔다는것이었다。

내용은 그후 얼마됩 지나서 방송국 친구들에게 들어 알았지만、기술파에 올라가서 미국방송을 몰래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나는 그의 소식을 몰랐다。방송국 친구들을 만나도、모두가

「글세、보석으루 나오긴 나왔다는데……」

이러한 정도였지、아무도 자세치는 않았다。

「그럼 진남포에 가서쉬고있나부다……」

나도 이쯤 생각하고 저으이 궁금해 하면 친구였고、만나고 싶던 동무였다。

「하여튼 잘만났소。그러지 않아도 손군 성미에 그냥 여태 고향에 처박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소、만세人소리를 듯구 좀 이 쑤셔서 그냥 고향에 엎드려 있을라구……」

그러니까 그는 그냥 큰소리로 허、허、허……하고 한바탕 웃고나더니

「인제 정말 우리가 바빠게 됐지요」

하였다。

「아암。」

나도 손군의 말에 힘이 나서、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덤석 한번 더 그의 손목을 덥처서 힘을 주어 흔들었다。

일본 천황의 방송이 있은지 채 닷새가 안되어 그런지、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미칠듯이 날뛰어 돌아다니는 흥분된 표정이 똑 차 있었다。

나도 마침 별다를 일도 없이、그저 심심파적으로、그동안 무슨 새로운 소식이나 없나 하고 신문사 친구를 찾아 나선 길이었다。

그도 나도 서로 딱 각이 아무 약속도 없었지만、그냥 경중되개를 뒤돌아 들었다。

「그저 그 술집이 있나…」

하며 앞서 가는 쭝이면 술집으로 가자는 눈치였다。

나는 바싹 손군의 어께를 껴끌고 따라섰다 만세를 부르며 트럭크 한대가 앞을 수없 지나갔다。

올해는 獨立戰取

兒童敎育研究社

東海貿易藥品商會
代表者 金 榮
서울鍾路一街八番地
電話光③3598番

洋品雜貨商 廣信商會
漢城市中區本町一丁目四九番地
電話本局二四六九番

工具 宇利洋行
忠武路一街一八

李殷鍾
忠武路二街一八 電話②三五四八

食料와喫茶 金剛
忠武路二街八 電話②二七·四二四五

國際羅紗店
서울本二丁目一 電話五〇五·五〇六番

洋品百貨·婦人服 紳士服·子供服 鮮光商會
漢城市中區本町二丁目一〇四 電話本局②九五六四番

韓榮商會
서울市中區本町一丁目一八番地 電本②四八三番

東方土木株式會社
서울市中區明洞二街三五의二六
取締役社長 李翔儀
電話本局②二五三一

食料 海產物 都賣 三義洋行
서울市中區草洞一街八八(前永樂町)
電話②六三七〇番

京畿產業株式會社
서울市中區乙支路二街一二八
代表取締役 金根鎬
電話本局②九七四·一九六六·二三〇四番

京畿產業株式會社仁川支店
仁川市新浦洞一街一
電話仁川一四五四·六二一番

三和洋行
洋酒·菓子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②〇五六四番

各種帽子製造販賣 漢城帽子店
京城府本町二丁目三五

趙利顯物產商會
서울市本町二丁目八六 電話本局②五五四番

朝鮮敎育品商會
서울市中區仁峴洞二街二〇三 李容興

文房具 共榮社
서울市忠武路一街四七

土木建築 電氣 新興工社
서울市中區明洞二街八二番地
電話②七四五三·六二五七·〇〇七六

三輪實業社
서울市中區明洞二街八十二 電話本局②五九二〇

出版業 文敎社
서울市乙支路(黃金町)二街一六六 電話本局②八六一五番

濟物浦樂器店
金興山
서울市乙支路三街二九一

朝鮮鑛工株式會社
서울出張所
서울市中區乙支路一街九七番地

軍政廳商務部工業局紡織課各工場建設指定會社
土木·建築 請負業
太建工務會社
社長 李義順
李義德 金冊煥 金敎湘 李東柱 洪炳燮
本社 서울市龍山區漢江路一街一七六番地
分室 서울市中區明洞一街五九番地 電話②七三三七番
支店 全州府鎮北洞四三〇番地 電話全州六五七番

ClibPDF - www.fastio.com